“2년만에 첫 승 … ‘꼴찌의 도전’ 지켜보세요”

스포츠 포커스

광산중 여자축구부

‘꼴찌들의 힘찬 도약’이 시작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전국대회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했던 광산중(교장 송양호) 여자축구팀이 첫 승을 거두고 본격적인 승수쌓기에 돌입했다.

지난 3월 강진서 열렸던 춘계대회에서 서울 오주중을 1-0으로 제압하고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결승골을 터뜨린 후 선수들은 감독에게 달려가 감사의 절을 하며 골 세리머니를 했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응원나온 교장·학부모는 마치 대회 우승이라도 한 듯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광산중이 거둔 이 날의 승리는 오랬동안 목 말라했던 1승의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이들은 이름만 축구부였지 실력은 동네축구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팀웍은 생각도 못하고 패스조차 제대로 안되는 오합지졸의 상태. 기본기가 없는데다 체력까지 약해 후반에는 지쳐서 달리지도 못했을 정도였다. 경기당 평균 실점 10골, 선수들에게서 승부욕은 찾아볼 수 없고 패배의식만 가득차 있었다. 팀 해체설까지 나돌 정도였다.

이처럼 더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1승은 무엇보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대회 출전조차 두려워했었던 선수들이 이제는 대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변했다.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면 어깨 펴고 다녀요’, ‘더 열심히 해서 여자 박지성이 될래요’

도대체 1년사이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패배의 긴 터널을 지나온 이들의 꿈과 목표는 무얼까?

◇ 27세의 여자 감독 등장=지난해 9월, 운남고 축구코치였던 이지연씨가 광산중 축구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이 감독이 처음 느낀 축구부는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할 정도였다고 한다.

뒷줄 왼쪽부터 김시은·장현수·백장미·박현아 선수·이진희 감독·서세희·김민·박하나·이수빈·오지은 선수. 아랫줄 왼쪽부터 박지원·김예진·정수연·정윤지·김지민 선수.

엄마같은 여자감독 “훈련은 재미있게”
유소년 국가대표 박예은·손화연 배출
8월 소년체전서 또 한번의 승리 기대

그는 “처음엔 팀웍은 말할 것도 없고 패스·킥 등 기본기가 전혀 없었고, 관리도 제대로 안돼 절대적으로 선수가 부족한 상태였다”고 부임 당시를 설명했다.

이 감독은 가장 먼저 ‘우리는 한가족 이다’는 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패배감에 젖어있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어른들을 보면 반드시 인사하고, 팀 동료들간에 믿음을 갖도록 바른생활을 강조했다.

운동장에서 훈련할 때는 ‘엄격한 감독’이었고, 그 외의 생활에서는 ‘자상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면 이 감독을 ‘엄마’라고 불렀다. 선수들의 먹을거리나 빨래는 이 감독의 몫 이었다. 쉬는 시간엔 선수들이 고민이나 학교생활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친언니 같은 자상함도 보여줬다.

이 감독은 또 훈련시간을 줄이는 대신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여 즐기는 운동이 되도록 지도했다. 특히 이 감독은 “ 어린 선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않는 새벽훈련은 없앴고, 하루 훈련도 오후 2시간 정도만 실시해 싫증내지 않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감독의 지속적인 관심에 닫혔던 선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동료애가 두터워지면서 새롭게 축구팀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 ‘여자 박지성’이 될래요=광산중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소년체전에서의 또 한번의 1승이다. 광주대표로 출전해 메달 획득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예전과 달리 자신있는 경기를 펼쳐 이제는 이기는 팀이 되고자 하는 승부욕도 담고 있다.

한때 운동을 그만두게 될 위기도 있었던 이들은 대부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더나아가 ‘박지성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선수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훈련도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있다.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은 이들이 ‘만리장성’이라고 말하는 체력훈련. 학교 운동장 주변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기 훈련을 20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매일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

이젠 제법 팀웍을 갖춘 광산중에는 현재 2명의 유소년 국가대표가 있다. 파워가 넘치고 장래성을 인정받은 박예은(2년)과 손화연(1년)이 대표로 뽑혀 파주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창단했던 광산중 축구팀은 2005년 여왕기대회 준우승을 기록한게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다.

다음은 선수들이 밝힌 각오들의 일부이다.

‘꼴찌팀이라고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도록 노력하겠다’ 〈백장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김민〉. ‘박지성 같은 멋진 선수가 되는게 꿈’〈오지은〉. ‘꼭 국가대표가 돼 자랑스런 광산인이 되겠다’〈장현수〉.

축구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광산중 축구팀이 새롭게 다진 패기로 다가오는 전국대회에서 잇단 승리의 축가를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년간 전국대회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꼴찌’ 광산중축구팀이 올해 새롭게 팀을 재정비한 후 첫 승을 기록, 그 여세를 몰아 소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